



미 증시, 침체 리스크 상존에도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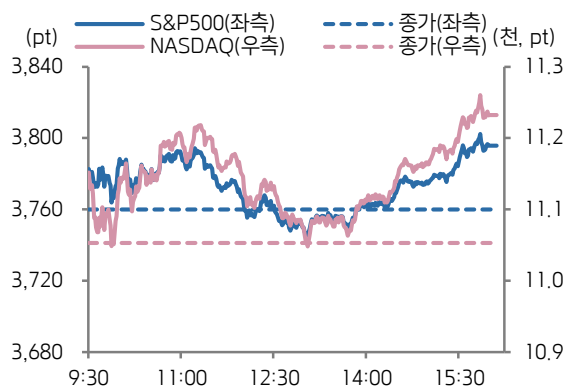
23 일(목) 미국 증시는 미 국채 10 년물 금리 하락, 유가 하락, 경제지표 부진 등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인식 및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 전망 속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다우 +0.64%, S&P500 +0.95%, 나스닥 +1.62%, 러셀 2000 +1.27%).

파월 연준 의장은 전일에 이어 하원 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할 것’, ‘금리 인상에도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세는 강할 것이며 고용 시장이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지 않다’ 고 언급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고용 시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던 전일 대비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보임. 보우만 연준 이사는 ‘7 월 FOMC 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을 지지하고, 경제 지표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 최소 50bp 인상을 예상한다’ 고 언급.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3.09%대로 하락, 2 년물 금리 역시 3.03%대로 하락하며 10년물-2년물 금리차는 전일 대비 축소되었고, WTI 역시 수요 둔화 우려 반영하며 104달러까지 하락.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 만 9,000 명으로 전주대비 감소했으나 예상치인 22 만 5,000 명을 상회.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6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52.4(예상치 56.0, 전월치 57.0), 서비스업 PMI 는 51.6(예상치 53.3, 전월치 53.4)를 기록하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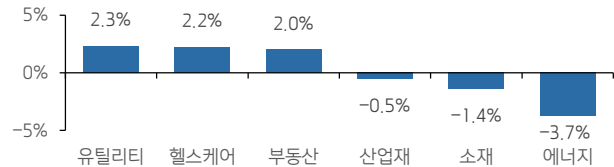
업종별로 유틸리티(+2.3%), 헬스케어(+2.2%), 부동산(+2%) 등이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3.7%), 소재(-1.4%), 산업재(-0.5%) 등이 약세를 보임. 애플(+2.16%), 알파벳(+0.68%), 아마존(+3.2%) 등 주요 시총 상위주들은 반등했으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5% 하락했고 엔비디아(-0.83%), 마이크론(-0.21%) 등 역시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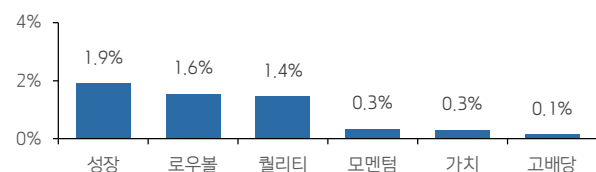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95.73	+0.95%	USD/KRW	1,301.39	+0.28%
NASDAQ	11,232.19	+1.62%	달러 지수	104.40	+0.2%
다우	30,677.36	+0.64%	EUR/USD	1.05	-0.01%
VIX	29.05	+0.35%	USD/CNH	6.70	+0%
러셀 2000	1,711.67	+1.27%	USD/JPY	134.95	+0%
필라. 반도체	2,602.74	-0.6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032.21	+0.91%	국고채 3년	3.610	+9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725	+5bp
Eurostoxx50	3,436.29	-0.82%	미국 국채 2년	3.015	-4.1bp
MSCI 전세계 지수	596.99	+0.43%	미국 국채 10년	3.087	-6.9bp
MSCI DM 지수	2,537.26	-0.2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93.59	-2.3%	WTI	104.27	-1.81%
MSCI 한국 ETF	57.22	-1.02%	금	1829.8	-0.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수요 부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약화가 아시아 증시에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지 여부 2. 장 중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인한 수급 변동성 장세 지속 가능성 3. 1,300 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오버슈팅 진정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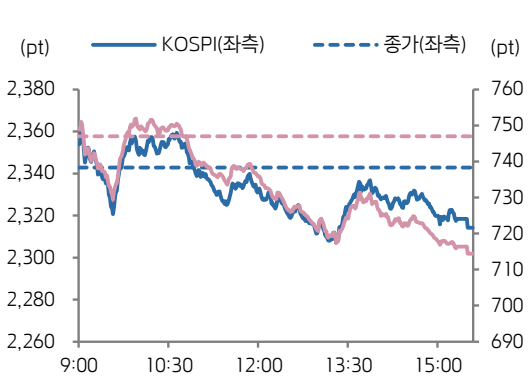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23 일 하원 증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 또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하는 등 하반기 성장세를 감안 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 그러나 연준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영역에 진입한 상태이다 보니(3 월말 +50pt→6 월 말 현재 -53pt), 시장은 침체 우려를 쉽게 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지가 관건인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최근 침체 리스크 확산이 수요 부진 전망을 유발하면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따라서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는 낙폭과대 인식, 압박한 2 분기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기술적 반등이 수시로 나타날 전망이다, 7 월 중 발표 예정인 6 월 인플레이션, 2 분기 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 7 월 FOMC 이후 75bp 인상에 대한 재료 소멸 인식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원/달러 환율 1,300 원대 진입, 패닉셀링 확산으로 급락하며 연저점을 재차 경신한 국내 증시(코스피 -1.2%, 코스닥 -4.4%)는 글로벌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 미국 증시 강제 효과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전망.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에 비해 취약했던 고유의 수급 상 악재인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금일에도 출회될 것이라는 점은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 전거래일 국내 언론 등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 담보부족 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물론 모든 담보부족 계좌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 개시 직후부터 수급 변동성 자체는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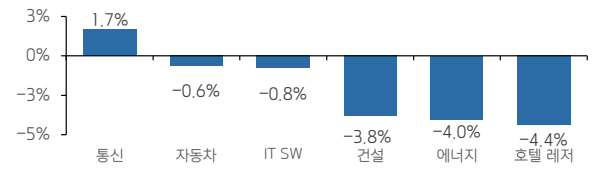
이처럼 반대매매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현재 약 19.5 조원(코스피 10.4 조원, 코스닥 9.1 조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3 년 평균 수준인 9.5 조원대까지 하락해야, 즉 10 조원 정도 추가로 출회 되어야 반대매매 물량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존재. 추가 출회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대기 매수세 성격의 자금인 예탁금(현 56 조원) 대비 신용잔고비율은 약 35%로 팬데믹 이전 3 평 평균인 38%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시, 대규모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지양. 더 나아가, 전거래일처럼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 동반 급락했던 2 차전지소재, PCB 업체들처럼,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는 채 수급으로 인한 주가 급락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반대매매 리스크가 높아지는 장에서 매수기회로 활용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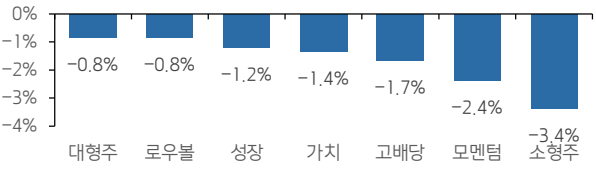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